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이 몸이 죽은 뒤에 무엇이 될까 생각해보니,

초장: 자문(죽은 후 무엇이 될까?)

①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②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① 신선의 땅: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공간 ② 가지가 길게 늘어진 소나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형상화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우의적으로 표현
화자 자신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어서

중장: 자답(낙락장송이 되고자 한다)

③ **백설(白雪)**이 ④ **만건곤(滿乾坤)** 홀 제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⑥ **허리라**
③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 불의한 세력 ④ 하늘과 땅에 가득참
⑤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킴, 주제어 ⑥ 화자의 의지
②③ 색채(푸른색, 흰색)를 대비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흰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홀로 푸른 빛을 발하리라.

종장: 자답(독야청청하고자 한다)

- 성삼문

▣ 핵심정리

- * 갈래: 평시조
- * 성격: 절의가
- * 화자: 표면적 화자(성삼문)
- * 시적 상황: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상황
- * 정서와 태도: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
- * 주제: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
- * 표현상의 특징
 - ① 소나무를 소재로 하여 시상을 전개함
 - ②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 어휘

- * 봉래산(蓬萊山) : 신이 산다고 하는 三神山(삼신산)의 하나. 삼신산 = 영주산(한라산)/방장산(지리산)/봉래산(금강산)
- * 낙락장송(落落長松) : 가지가 축축 길게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여기서는 '지조가 고결한 선비'를 말함
- * 백설(白雪): 흰눈(진실을 외면하는 세력)

- * 만건곤(滿乾坤): 천지에 가득함(세조(수양대군)의 세력이 등등할 제)
- * 독야청청(獨也靑靑) : 홀로 푸른빛을 띠. 홀로 높은 절개를 지켜 늘 변함이 없음(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

▣ 이해와 감상

세상이 이롭지 못한 것으로 가득차도 자신만은 곳곳하게 절개와 의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절의가(絶義歌)이다. '낙락장송'은 자신의 굳은 결의를 표현한 것이며, 종장의 '백설이 만건곤할 제'는 세조의 불의(不義)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뜻한다. 그리고 '낙락장송'과 '백설'은 서로 색채적인 대조를 이루는 상징어이며, 종장의 '독야청청'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 세상을 굽어보는 푸른 소나무의 높은 지조로 살아가겠다는 작자의 의지가 돋보인다.

▣ 본문해설

꿈에 왔던 님이 썩여 보니 간 디 업니
 입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비현실적 차원
 꿈에 왔던 임이 깨어보니 간 데 없네.

초장: 꿈 속에서 본 임이 현실에는 없다는 인식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수동적인 여성 화자의 태도가 나타남
 몹시도 사랑하던 임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중장: 임의 부재로 인한 허망함

꿈속이 허사(虛事) | 라 만정 자로 뵈게 헛여라
 허망함 질박한 화자의 상황

꿈속과 꿈에서 갠 현실 상황이 대조됨
 꿈 속에서 만나는 일이 비록 헛된 일일지언정, (꿈속에서라도) 자주 뵈 수 있기를 바란다.

종장: 꿈 속에서라도 임을 자주 뵈고 싶은 마음

- 박효관

▣ 핵심정리

- * 갈래: 평시조
- * 성격: 애상적, 감상적
- * 제재: 임
- *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
- * 특징: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함.

■ 어휘

- * 탐탐(耽耽)이: 탐탐하게(마음에 들어 만족하게)
- * 괴던: 사랑하던
- * 허사(虛事): 헛 일

■ 이해와 감상

그리워하던 입을 꿈속에서 만나 온갖 회포를 풀다가 잠이 깬다. 꿈이었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입이 간 곳이 없다. 빈방에 홀로 앉아서 입에 대한 생각을 하니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입이여 정말로 올 수 없는가. 그렇다면 꿈속에서 밖에 만날 수 없으니 꿈에서라도 자주 자주 찾아 주십시오. 상사의 정을 애절하게 노래한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헤어진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입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즐거운 때를 보내지만, 깨고 한 후의 허망함을 느끼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꿈에서라도 입을 보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 본문해설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은유(인생 살이의 고달픔을 꼭 막힌 방에 비유), 반복, 기발한 발상
창 내고 싶다, 창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싶다.

초장: 마음에 창을 내고 싶다.

고모장조 세살장조 그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쩌귀 수돌쩌귀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져
열거(여러 유형의 나열을 통해 절실한 마음을 표현)

사설시조의 특징(중장의 장형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쩌귀, 수돌쩌귀, 배목걸쇠를 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싶다.

중장: 장도리로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잇다감 하 답답홀 지 여다져나 불가 흐노라
초·중장: 비유적 제시, 중장: 직설적 표현
이따금 몹시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중장: 답답할 때 여닫고 싶다.

- 작자 미상

■ 핵심정리

- * 갈래: 사설시조
- * 제재: 창(=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마음)
- * 성격: 해학적, 의지적

- * 주제 :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생활고에서 비롯된 근심걱정의 극복의지.
- * 시적화자의 태도 : 현실극복의 의지가 강하다.
- * 표현상의 특징 :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다. 매우 해학적이다. 기발한 착상을 했다.
- * 구성
 - 초장 :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함(답답한 심정 = 폐쇄된 공간 = 답답한 방)
 - 중장 : 창의 종류와 창을 다는 방법<풀어 헤치는 열망에 어울리게
(우악스런 목수의 솜씨 = 크나큰 장도리)로 창을 똑딱 만들어>
중장에서는 : '활기 = 표현의 자유 = 풍자'를 느낄 수 있음
 - 종장 : 마음이 답답할 때 얼어봄

■ 어휘

- * 고무장지 : 고무래 들창, 고무래 장지
- * 세살장지 : 가는 살의 장지. 가로 세로의 살대를 가늘게 다듬어서 만든 장지
- * 들장지 :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 * 열장지 : 좌우로 열려 젖히게 된 장지
- * 돌져귀 : 돌쩌귀 문짝을 달고 여닫기 위한 쇠붙이로 암수 두 개의 물건으로 됨.
- * 배목걸새 : 문고리에 꿰는 쇠
- * 잇다감 : 이따금

■ 이해와 감상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번뇌에서 기인하는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작품이다. 답답한 가슴을 꼭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창문을 만들어 여닫음으로써 그 답답함을 해소해 보겠다는 착상이 참으로 기발하고 재미있다. 가슴에 창문을 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매우 적절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생활 언어를 구사하여 문 만드는 모습을 과장적으로 묘사한 것은 다분히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이처럼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 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 이해와 감상

이성적인 사고나 착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착상을 기상(奇想)이라고 한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꼭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창문을 달아서 답답한 심정을 풀고 싶다는 착상이 바로 그러한 기상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다. 구체적 생활 언어를 장황하게 열거함으로써 답답한 심정을 절실하고도 다소 과장적으로 표현함과 아울러,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적극적 의지도 함께 보여 주었다는 데 이 노래의 특색이 있다.

교재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흐리라
 - 성삼문

(나)
 꿈에 왓던 님이 썩어 보니 간 디 업니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썩속이 허사(虛事) | 라 만정 자로 뵈게 흐여라
 - 박효관

(다)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조 세술장조 3로다지 여다지에 암들저귀 수돌
 저귀 크나큰 장도리로 썩씩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저
 잇다감 하 답답홀 직 여다져나 불가 흐노라
 - 작자 미상

1.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의 화자와 달리 대상에 빗대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색채 대조를 통해 자신의 절개를 강조한다.
 - ④ (가)의 화자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의 화자는 대상을 보고 싶어 하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백설(A)과 <보기>의 백설(B)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라 하노라
 - 이색

- ① A와 B 모두 부정적인 존재로 드러나 있다.
- ② A와 B 모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접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한다.
- ③ A와 달리 B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시공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 ⑤ A와 달리 B는 그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의 갈등 해결 방식 중에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는 방식으로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거나, 현세 이후를 떠올리거나, 선언적 태도를 취하는 것 등이다.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갈등 해소 방식도 있는데, 이는 시간을 되돌려 놓거나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삼는 경우이다. 그 밖에 상황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갈등을 극복해 보려는 희화화의 방식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도 없이 갈등을 남겨 두게 된다면, 그 갈등은 시조 작품 안에서 한(恨)으로 나타나곤 한다.

- ① (가)에서는 ‘이 몸이 주거 가서’라고 현세 이후를 떠올리며 ‘~흐리라’라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탐탐이 괴던’ 임이 떠나고 없는 갈등 상황을 ‘썩’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군.
- ③ (나)의 화자가 ‘썩속이 허사’임을 알고 있지만 갈등

을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④ (다)는 창문의 종류와 창문을 만드는 과정을 열거하여 괴로운 상황을 희화화했군.

⑤ (다)의 화자는 '이내 가슴의 창'을 만들고 '답답홀여다져' 보겠다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내용확인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흐리라
 - 성삼문

솜에 왓던 님이 썬여 보니 간 디 업니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브리고 어디 간고
 솜속이 허사(虛事) | 라 만경 자로 뵈게 흐여라
 - 박효관

1. 현대어 풀이

- ① 초장: ()
- ② 중장: ()
- ③ 종장: ()

2. 시어의 대비

()	↔	()
불의한 세력 (하얀색)		화자 (푸른색)

3. 시어 풀이

- * (): 화자의 절개 상징
- * (): 왕위를 찬탈한 수양 대군 일파
- * '독야청청': ()

4. 핵심정리

- ① 갈래: 평시조
- ② 작가: 성삼문
- ③ 표현상 특징
 - 1) ()를 소재로 하여 시상을 전개함
 - 2)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개를 ()적으로 표현함
- ④ 주제: ()

5. 현대어 풀이

- ① 초장: ()
- ② 중장: ()
- ③ 종장: ()

6. 입을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심정은 () 화자인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7. 시어 '솜'의 의미: ()

8. ()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9. 핵심정리

- ① 갈래: 평시조
- ② 작가: 박효관
- ③ 성격: ()적, 감상적
- ⑤ 표현상 특징: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함.
- ⑥ 주제 : ()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조 세술장조 ㄱ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
 겨귀 크나큰 장도리로 썩썩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저
 잇다감 하 답답홀 직 여다져나 불가 흥노라
 - 작자 미상

10. 현대어 풀이

- ① 초장: ()
- ② 중장: ()
- ③ 종장: ()

11. 표현법

- ① 초장에 사용된 표현법: ()
- ② 중장에 사용된 표현법: ()

12. 시어 풀이

- *창(窓): ()
- *(): 똑딱, 음성 상징어의 사용

13.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특징 비교

	평시조	사설시조
작가	양반(사대부 계층)	()
특징	•상징적인 시어 활용 •관념적 주제 제시(총의, 연정 등)	•기발한 발상과 표현 •진솔한 감정 표현(애정, 시름 등)
성격	의지적, 상징적	()적, ()적
형식	3장으로 구성되고 3장의 길이가 비슷한 정형성을 유지함	3장은 유지하되 ()이 길어지는 파격성을 보임

14. 핵심정리

- ① 갈래 : ()
- ② 작가 : 작자미상
- ③ 성격 : ()적, 의지적
- ④ 표현상 특징
 - 1) 추상적인 것은 ()화 시켰다.
 - 2) 기발한 ()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3) 웃음을 고통으로 극복하려는 ()성이 드러난다.
- ⑤ 주제: ()

서술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헝리라 - 성삼문
(나) 꿈에 왔던 님이 깬여 보니 간 디 업니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브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虛事)이라 만정 자로 뵈게 헝여라 - 박효관
(다)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즈 세슬장즈 ㅁ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 져귀 크나큰 장도리로 썩썩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져 잇다감 하 답답홀 직 여다져나 불가 헝노라 - 작자 미상

1. (가)에서 색채의 대비가 나타난 시어를 찾고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2. (가)에서 '낙락장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 (나)에서 현실과 꿈을 대비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4. (나)의 작가가 시적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5. (다)의 표현상의 특징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6. (다)의 작가가 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7. (가),(나)와 (다)의 갈래가 무엇인지 쓰고, 갈래상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8. (다)와 같은 사설시조의 형식적 파격성의 효과를 서술하시오.

9. (가)에서 주제를 표현하는 시어를 찾고 그 시어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10. (나)의 '백설'과 <보기>의 '눈'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를 화자의 태도와 연관 지어 10자 내외로 쓰시오.

<보기>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툰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썩인가 헝노라 - 원천석

정답 및 해설

교재변형문제

1. <답> ②

(나)의 화자는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의 화자는 다른 부정한 세력들과 구별되게 혼자만의 깨끗함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답> ⑤

① B는 고려의 유신을 뜻하는 시어로 부정적인 존재로 드러나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와 B 모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③ B는 사그라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④ A는 B와 달리 시공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3. <답> ②

(나)의 화자는 '꿈'이라는 비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한다.

내용확인

1. <답> ①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생각해보니 ②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큰 소나무가 되었다가 ③흰 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홀로 푸르리라

2. <답> 백설, 낙락장송

3. <답> 낙락장송, 백설, 지조를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

4. <답> 소나무, 우의,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

5. <답> ① 꿈에 나타났던 임이 꿈에서 깨어 보니 자취를 감추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네 ②나를 마음에 들어 하며 사랑해 주시던 임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것인가? ③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용없었지만 꿈에서라도 임이 자주 보이게 하여라.

6. <답> 여성

7. <답> 입을 만날 수 있는 공간

8. <답> 현실, 꿈속

9. <답> 애상, 입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

10. <답> ①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②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단이에 암톨찌귀 수톨찌귀를 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③이따금 몹시 답답할 때면 여단아 볼까 하노라

11. <답> ① 반복법 ② 열거법

12. <답>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 썩씩

13. <답> 서민, 해학, 풍자, 중장

14. <답> 사설시조, 해학, 구체, 발상, 해학, 삶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서술형

1. <답> 백설, 낙락장송,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저항적 태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2. <답> 화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로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답> 꿈에서 깬 화자의 허망함을 강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화자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4. <답> 남성들은 머무름과 떠남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 작가들도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작품을 지었다.

5. <답> 1) 사람의 가슴에 창문을 만든다는 기발한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2) 웃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드러남. 3)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함. 4) 창문의 종류와 창문과 관련된 도구를 나열하여 흥미를 높임.

6. <답>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

하여 화자의 절실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서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7. <답> (가),(나)는 평시조이고 (다)는 사설시조이다. (다)는 (가),(나)와 같은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지는 형식을 갖고 있다. 또한 평시조의 작가는 주로 양반인 반면, 사설시조의 작가는 주로 서민이며 평시조는 상징적인 시어, 관념적 주제가 나타나지만 사설시조는 진솔한 감정이 나타난다.

8. <답> 사설시조의 작가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반복, 열거, 과장 등을 사용하는데, 중장의 두 구가 길어지는 사설시조의 형식적 파격은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9. <답> 독야청청, 지조를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의미한다.

10. <답> (나)의 '백설'은 부당하게 왕(단종)을 몰아낸 세조의 세력을 나타내고, <보기>의 '눈' 역시 새 왕조에 협력하라는 세조 세력의 압력과 회유를 나타낸다. 이를 절의를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와 연관 지으면 '백설'과 '눈'은 절의(절개)를 지키려는 화자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